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 은 하

백 혜 영[†]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존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40명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들의 성차별경험,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화병을 측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는 자존감(통제변인)이 화병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이 화병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면 자존감 안정성은 화병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자존감 안정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의미한다. 즉, 자존감 안정성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자료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화병 점수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화병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자존감은 낮지만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집단, 자존감은 높지만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집단, 둘 다 모두 높은 집단의 순으로 높은 화병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한다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자존감과 더불어 자존감 안정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차별경험,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화병

[†] 교신저자 : 백혜영, 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울곡관 371-1호
E-mail : rogers98@ajou.ac.kr

서론

지난 몇 세기 동안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통적 성역할과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로 인해 여성들은 고용, 교육, 평가, 배치, 승진, 보상 등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받고 있다(김은하, 김지수, 박한술, 김도연, 김수용, 2017). 이를 반영하듯, 한국 성평등 보고서(2017,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64.1%에 불과했으며, 고용안정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은 73.0%, 여성은 5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7년 세계 젠더 갭 리포트'를 살펴보면,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조사 대상 144개국 중 118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임금평등에서는 121위, 정치적 권한에서는 90위를 차지하였다(글로벌 사회 사회정책 브리프, 2017). 직장 내 성희롱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가령, 최근 실시된 여성가족부(2015)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1.8%가 성희롱을 경험한 반면, 여성의 9.6%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취업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들은 임신 혹은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 받거나 일을 계속 하는 경우 전통적인 주부로서의 역할과 남성과 동등한 근로자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어 심각한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을 경험하고 있다(안상수, 김금미, 2010; 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성차별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을 토

대로 여성 혹은 남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행동, 정책,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김재은, 김지현, 2016), 성차별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Klonoff & Landrine, 1995; Moradi & Subich, 2004), 대인관계 문제(Meyers, 1997), 직장 관련 문제(Burke & Mikkelsen, 2005)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 혹은 조직 내 성차별적 문화는 낮은 삶의 만족도 및 높은 공포, 불안, 우울 등과 관련이 있으며(김혜숙, 장재운, 2002; Choi, Bowleg, & Neilands, 2011; Thomas, Witherspoon, & Speight, 2008), 여성 근로자가 직장 내 성차별을 많이 지각할수록,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인희, 2015). 또한 성차별경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예. 분노 표현) 여성의 경우 '히스테리를 부린다', '예민하다'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어(Meyers, 1997; 손은주, 김성진, 최인철, 2017),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Pascoe, Smart, Richman, 2009). 이와 더불어, 성차별경험은 업무수행의 의욕 저하 및 능력 저하 그리고 낮은 경력 몰입과 높은 이직의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지현, 탁진국, 200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아직까지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화병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종의 분노 증후군으로(Min, 2009), 가슴 답답함, 몸의 열기, 치밀어 오름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우울, 불안, 초조, 후회, 분노 등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동반한다(Min, Suh, & Song, 2009).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경험이 화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화병이 여성의 희생과 양보를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적 문화와 남성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가부장적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 시댁과의 스트레스, 남편의 외도 및 음주문제 등을 많이 경험하고도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분노를 억압하고 양보하며 살아온 여성들이 화병에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김은하, 김혜림, 2015; 김민정, 현명호, 2010; 박 경, 2014), 성차별이 화병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둘째, 많은 화병 환자들은 타인이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김은하, 김혜림, 2015; Park, Kim, Schwartz-Barcott, & Kim, 2002). 특히, 이들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김은하, 장윤지, 2015), 성차별경험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련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가령, 김은하 등(2017)에 의하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수준의 화병과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차별경험이 다양한 부적응의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는, 낮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김은하, 김혜림, 2015), 낮은 자존감(Fischer & Holz, 2007), 낮은

통제감(Landry & Mercurio, 2009; Moradi & Hasan, 2004), 높은 자기-침묵(Hurst & Beesley, 2013), 높은 자기-대상화(McLaughlin, 2017), 강한 분노(김예은, 2018) 및 회피적 대처 방식(Wei, Ku, Russell, Mallinckrort, & Liao, 2008)이 확인되었고, 조절 요인으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Major, Kaiser, O'Brien, McCoy, 2007), 자존감(Corning, 2002; Moradi & Subich, 2004), 여성주의 정체성(김예은, 2018), 페미니즘 활동에의 관여(Szymanski & Owens, 2009) 등이 보고되었다.

성차별경험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 받는 요인 중 하나는 자존감으로, 자존감은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간의 관계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성차별(혹은 인종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져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Cassidy, O'Connor, Howe, & Warden, 2004; Fischer & Holz, 2007; Harrell, 2000),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Corning, 2002; Fisher & Shaw, 1999; Moradi & Subich, 2004).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몇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성차별경험이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첫째, 자신에 대한 평가는 타인의 피드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즉,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Leary & Baumeister, 2000). 둘째, 성차별경험은 낮은 통제감을 통해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은 자신의 삶에서 통제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수동적 대처 양식, 무기력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Wei et

al., 2008). 이에 반해, 자존감이 높은 여성의 경우 성차별적 사건이나 상황에 당면했을 때, 이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 가해자에게 자신의 불편감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에 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orning, 2002).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자존감이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없었지만, 몇몇 연구를 통해 자존감이 완벽주의, 자기에, 학업 및 가족문제 스트레스,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진희, 임성문, 2015; 신현균, 김희경, 2015; 정선태, 홍혜영, 2016; 조한익, 조민경, 2013).

자존감의 고저수준과 더불어 자존감 안정성(stability of self-esteem), 즉, '자기 가치감의 변화 폭 정도'도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Kernis, 2005). 이 개념은 자존감이 변화 가능한 상태 요소인가 혹은 안정된 특질적 요소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장재원, 신희천, 2011; Leary, Tambor, Terdal, & Downs, 1995),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자존감은 타인의 피드백, 특정 사건, 연령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변인이며 개인마다 자존감 안정성이 다를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Hayes, Harris, & Carver, 2004; Roberts & Monroe, 1992). 특히,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stress-diathesis model) 중 하나인 Teasdale(1988)의 차별화 가설(differential activation hypothesis)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적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쉽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negative self schema)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사람은 자존감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에 취약하다. 자존감 안정성

을 많이 연구해 온 Kernis와 그의 동료들은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참여자로 하여금 며칠에 걸쳐 매일 자존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고, 이렇게 평정된 자존감 점수의 표준편차를 자존감 안정성의 지표로 사용하였다(Kernis, 2005). 즉, 자존감의 표준편차가 적을수록 자존감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의 일시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제기되면서(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장재원과 신희천(2011)은 자존감 안정성을 "개인의 자존감이 자기 외부의 관계적, 환경적 변화나 내부의 정서적 변화 요인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자존감 안정성 척도(Stability of Self-esteem Scale)를 개발하였다.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독립된 개념으로,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은 각각 안정적 자존감과 취약한 혹은 불안정한 자존감으로 구분될 수 있다(Kernis, Grannemann, & Barclay, 1992). 안정적인 자존감은 주위 환경에 자존감의 기반을 두지 않고 외부의 평가나 자신의 기분 변화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반면에(Kernis, Paradise, Whitaker, Wheatman, & Goldman, 2000; Myers & Zeigler-Hill, 2008), 취약한 혹은 불안정한 자존감은 외부로부터의 피드백이나 자신의 기분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Kernis, Grannemann & Mathis, 1991). 예를 들어, 취약한 혹은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분노, 적대감, 공격성 그리고 언어적 방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향, 김완일, 2014; Vickery, Sepelri, Evans, & Jabeen, 2009),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

을 통제 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ernis, Brown, & Brody, 2000). 또한 자존감 안정성이 낮을수록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Franck과 Raedt(2007)의 종속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 안정성이 자존감에 비해 우울을 더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자존감 안정성이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자존감 안정성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통제 한 상태에서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 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이를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모호하거나 부정적인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자기 가치감을 위협받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Myers & Zeigler-Hill, 2008)가 보고되었고, 자존감 안정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이나 사회적 지지추구와 같은 적응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이 확인되었다(Kernis,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성차별적 상황에 당면했을 때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행동(예. 회피나 부인)을 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처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화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자존감 안정성이 스트레스 혹은 외상 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가령, Franck과 Raedt(2007) 그리고 Roberts

와 Kassel(1997)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안정성이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아도 자존감 안정성이 높으면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조한익, 조민경(2013)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 안정성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폭력 피해경험을 당한 학생들 중 자존감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안정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화병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안정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정현진(2014)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안정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존감 유형을 ‘고수준 고안정성’, ‘저수준 고안정성’, ‘고수준 저안정성’, ‘저수준 저안정성’으로 명명하여 분류하였고, ‘고수준 고안정성’과 ‘고수준 저안정성’이 ‘저수준 저안정성’에 비해 대인관계 능력이 유의하게 높으며, ‘고수준 고안정성’이 가장 낮은 우울과 불안을 보인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로, 정선태와 홍혜영(2016)에 따르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낮은 집단(‘혼란스러운 자존감’)이 사회불안이 가장 높고, 자존감은 높고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집단(‘깨어지기 쉬운 자존감’), 자존감은 낮고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집단(‘스스로 고립된 자존감’),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높은 집단(‘안정적인 자존감’)의 순으로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민정과 이기학(2009)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수준, 자존

감 불안정성, 방어성을 기준으로 자존감 유형을 분류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나타났는데, 군집 1은 자존감 수준, 자존감 불안정성, 방어성이 모두 높은 집단, 군집 2는 자존감 수준은 높지만 자존감 불안정성과 방어성이 낮은 집단, 군집 3은 자존감 수준, 자존감 불안정성, 방어성이 모두 중간인 집단, 군집 4는 자존감 수준은 낮지만 자존감 불안정성과 방어성은 높은 집단이었다. 집단별 방어 유형 점수를 비교한 결과, 군집 3과 4는 군집 2보다 자기억제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군집 4는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갈등회피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차별경험은 부적응적 심리 지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수 보고되었지만, 화병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실시된 반면에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성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주목해 온 자존감과 더불어 자존감 안정성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자존감 안정성은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둘째,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고저에 따라 화병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40명의 만 20세 이상 일반 여성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응답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구간을 한 번으로 응답하거나, 응답 시간이 너무 짧거나 3문항 이상의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의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2분 정도였고, 설문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가 지불되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5.93($SD=7.77$, 20~69)이었고, 연령대별 분포는 20대 56명(23.3%), 30대 104명(34.6%), 40대 51명(21.3%), 50대 39명(15.8%), 60대 이상 12명(5.0%)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미혼 121명(50.4%), 기혼 110명(45.8%), 이혼/별거 9명(3.8%)이었고, 학력은 고졸은 33명(13.8%), 대졸 179명(74.6%), 대학원 졸 이상 26명(10.8%), 기타 2명(8%)이었다.

측정 도구

성차별경험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성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하고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2017)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성차별사건 척

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6점 척도(1=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6=거의 늘(내 삶의 70% 이상의 시간) 그런 일이 일어났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까지 살면서(어린 시절부터)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교사나 교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여자라는 이유로 모르는 낯선 사람(예.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가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Klonoff와 Landrine(1995)의 연구에서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자존감 안정성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장재원과 신희천(2011)이 개발한 자존감 안정성 척도(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S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나의 자존감은 기분에 따라 쉽게 변한다", "나의 가치는 성공과 실패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가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장재원 등(2011)의 연구에서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 원호택(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가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이훈진 등(2001)의 연구에서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6로 나타났다.

화병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화병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권정혜, 김종우, 박동건, 이민수, 민성길, 권호인(2008)이 개발한 화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화병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한스러워지는 때가 있다", "얼굴에 열이 자주 달아오른다"가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권정혜 등(2008)의 연구에서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성차별경험, 자존감 안정성, 자존감, 화병)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둘째,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

립 변인과 조절 변인을 중심화(centering) 시킨 후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자존감 안정성과 화병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존감(유현욱, 홍혜영, 2015; Min, 2009)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자존감 안정성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자존감 안정성의 상호작용(성차별경험×자존감 안정성)을 투입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척도는 -.031~.422, 왜도는 -.188~.743으로 나타나 West, Finch,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척도 < 7, 왜도 < 2)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차별경험은 자

존감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화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안정성은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화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존감은 성차별경험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 자존감 안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화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효과 분석

다음으로,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자존감을 투입하였는데, 그 결과, 자존감이 화병을 유의하게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병 변량의 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화병 증상을 적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단계에 투입한 성차별경험과 자존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240)

	1	2	3	4
1. 성차별경험	-	-.225**	-.120	.292**
2. 자존감안정성		-	.471**	-.469**
3. 자존감			-	-.664**
4. 화병				-
M	2.504	3.198	3.281	2.225
SD	.824	.646	.610	.867
척도	-.517	-.175	-.031	.422
왜도	.743	-.188	-.011	.633

** $p < .01$, *** $p < .001$

표 2.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 분석(N=240)

	종속변인: 화병					
	비표준화계수		β	<i>t</i>	R^2	ΔR^2
	<i>b</i>	SE				
1단계						
자존감	-.576	.042	-.664	-13.682***	.438	
2단계						
자존감	-.490	.045	-.565	-10.890***		
성차별경험	.163	.041	.188	4.003***		
자존감 안정성	-.139	.046	-.160	-3.035**	.499	.065***
3단계						
자존감	-.490	.044	-.565	-11.022***		
성차별경험	.146	.041	.168	3.585***		
자존감 안정성	-.132	.045	-.152	-2.907**		
성차별경험×자존감 안정성	-.096	.035	-.125	-2.722**	.512	.015**

** $p < .01$, *** $p < .001$

감 안정성은 화병 변량의 6.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경험은 화병 증상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화병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존감 안정성은 화병 증상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자존감 안정성이 높을수록, 화병 증상을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성차별경험과 자존감 안정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고,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별경험과 자존감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존감 안정

성의 평균값과 $\pm 1SD$ 에 따라 자료를 세 집단(저, 중, 고)으로 구분한 후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가 세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존감 안정성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는 성차별경험을 많이 할수록 화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 안정성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화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별 화병 점수 차이 분석

마지막으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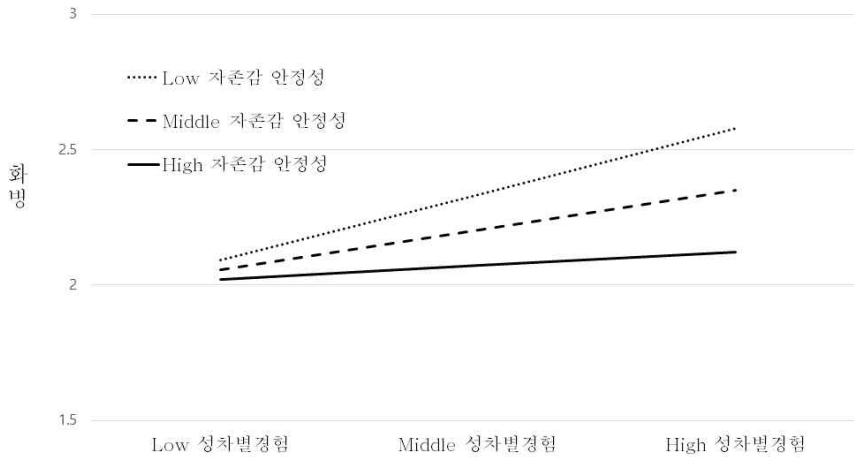


그림 1.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 분석

표 3. 자존감 안정성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i>b</i>	SE	<i>t</i>	LLCI(<i>b</i>)	ULCI(<i>b</i>)
자존감 안정성	-1SD	.013	.003	4.8825***	.008	.018
	평균	.008	.002	3.5853**	.004	.012
	+1SD	.003	.003	.8643	-.003	.009

고 낮음에 따라 화병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평균을 토대로 자료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Scheffe를 통해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 별로 화병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낮은 집단 4(N=71)가 자존감 혹은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집단 2(N=52)와 3(N=29) 그리고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높은 집단 1(N=88)보다 높은 화병 점수를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집단 2와 집단 3을 비교한 결과, 자

표 4. 집단 별 화병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F(2, 236)	사후검증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화병	1.683	.649	2.096	.693	2.655	.856	2.982	.785	34.495***	4>3>2>1

* $p < .05$, ** $p < .01$, *** $p < .001$. 사후 검증은 Scheffe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 제시하였음.

존감은 낮지만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집단 3이 자존감은 높지만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집단 2에 비해 화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 4와 집단 3의 화병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자존감 안정성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낮은 집단 4가 자존감은 낮지만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집단 3보다 화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존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화병 환자들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지각하여 억울함, 적대감, 분노 등을 느낀다는 점(Min, Suh & Song, 2009) 그리고 여성에게서 화병 발생률이 높다는 점(권정혜 등, 2008)에 주목하여, 성차별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화병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성별에 따른 불균형과 성차별이 존재하고 성차별이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본 연구는 성차별과 화병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화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인으로 1단계에 투입한 자존감이 화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화병이 부정적 자기 개념, 열등감,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김보균, 김종우, 지상은, 임재환, 김광호, 황의환, 2000; Kim, Hogge, Ji, Shim, & Lothspeich, 2014; Min & Suh, 2009; Park, Kim, Kang, & Kim, 2001)와 일치하는 것으로, 화병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화병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첫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에게 순응 혹은 의지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인데,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타인이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화병에 취약하다는 것이다(Park, Kim, Schwartz-Barcott & Kim, 2002). 또한 낮은 자존감은 수동적 대처를 통해 화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령, 여러 연구를 통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문제중심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적극적 대처 양식 보다는 회피, 부인, 양보와 같은 수동적 대처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wislo & Orth, 2013). 이러한 수동적 대처 양식은 화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어 낮은 자존감은 수동적 대처를 통해 화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Kim & Ingrid, 2013). 어느 사회문화에서나 공통적으로 여성의 자존감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 그리고 화병이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Bleidorn, Arslan, Denissen, Rentfrow, Gebauer, & Potter, 2016; Min, Suh & Song, 2009; Orth & Robins, 2014; Zeigler-Hill & Myers, 2012), 여성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있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 성차별 경험과 자존감 안정성을 투입한 결과, 성차별

경험은 화병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자존감 안정성은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지만, 성차별경험을 많이 할수록, 높은 수준의 불안, 우울, 섭식장애, 중독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Basford, Offermann, & Behrend, 2014; Dowler & Arai, 2008; Ro & Choi, 2010)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화병 환자는 타인이 자신을 차별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며 세상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김은하, 김혜림(2015)과 Min(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특성(예. 성별)으로 인해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억울함, 분노, 및 적대감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할 때(Landry & Mercurio, 2009), 성차별을 경험할수록 화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존감 안정성은 화병을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존감 안정성이 낮을수록 분노나 적대감을 많이 표출하고 공격성이 높으며 심리 및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 연구(우형진, 이정기, 2012; Kernis, Brown, & Brody, 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Kernis(2005)에 따르면, 자존감 안정성이 분노나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사람, 즉, 상황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쉽게 변하는 사람은 중립적이거나 모호한 타인의 행동이나 사건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해석하고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노와 적대감은 화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핵심 감정으로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발산하지 못

하면 화병을 초래할 수 있다(김은하, 장윤지, 2015).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예민하게 혹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는 점인데, 스트레스는 화병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in, 2009).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함을 의미한다. 즉, 성차별은 화병을 초래하는 요인이지만 자존감 안정성이 높으면 성차별을 경험해도 화병에 취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통제된 후에도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병을 이해하는데 있어 자존감뿐만 아니라 자존감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밝힌 선행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 de Man과 Gutierrez(2002)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자존감과 자살 사고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ranck과 Raedt(2007) 그리고 Roberts와 Kassel(1997)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안정성이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존감 안정성이 학교생활적응, 대인관계, 심리적 적응과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김명수, 조옥귀, 2010;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박미향, 김완일, 2014; Waschull & Kernis, 1996)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이,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이유는 먼저,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개인은 성차별적 상황을 해석하는데 있어 '개인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Kernis, Cornell, Sun, Berry. & Harlow, 1993). 즉, 성차별을 경험할 때 이를 자신과 연결시켜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가해자의 고정적 성역할과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귀인하고, 이런 특성으로 인해 부정적 자기 평가 감정인 자책감, 수치심 혹은 열등감을 느낄 가능성이 낮다. 둘째,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했을 때 반응적 대처(reactive style of coping) 보다는 문제해결중심(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Bentall, Myin-Germeys, Smith, Knowles, Jones, Smith, & Tai, 2011), 즉, 성차별적 상황에 당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 숙고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중심 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Wei, Heppner, Ku, & Liao, 2010; Wei, Ku, Russell & Mallinckrodt, 2007). 셋째,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 효과는 반추와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Bentall, Myin-Germeys, Smith, Knowles, Jones, Smith와 Tai(2011)에 따르면,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성차별상황에 대해 반추(어떤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거나 되풀이하여 생각하는 행위; Nolen-Hoeksema, 1991)를 덜 하는데, 부정적인 사건. 특히 화가 나는 사건에 대해 반추(분노 반추)를 많이 할수록 화병에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김선희, 김은하, 김태훈, 2014)을 고려할 때, 자존감 안정성은 낮은 수준의 반추와 관련이 있어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평균을 토대로 자료를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화병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낮은 화병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이 집단의 화병 점수가 자존감은 높지만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즉, 자존감이 높아도 자존감 안정성이 낮으면 둘 다 높은 경우보다 화병 증상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과 더불어 자존감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가 적어 집단간의 차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네 집단의 표본수를 늘려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실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여성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있어 성차별경험을 탐색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Mazzula & Nadal, 2015). 특히 성차별경험이 화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성차별경험에 대한 내담자의 수치심, 억울함, 분노, 적대감 등을 탐색하고, 이러한 감정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하기 보다는 타당화해주고 반영하며 공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화병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통제된 후에도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존감의 수준과 더불어 자존감 안정성을 다루는 상담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상담자는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은 동시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독립적인 차원으로 개념화된다는 점(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을 고려하여 자

존감이 높은 내담자도 자존감이 불안정하여 성차별을 경험하면 화병에 취약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자존감 안정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존감이 기분, 주위 환경, 타인의 반응(예. 칭찬, 모욕)에 따라 쉽게 변하는지 탐색하여 내담자의 자존감 안정성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담자가 낮은 자존감 안정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지적 개입을 통해 인지적 오류(예. '개인화', '과잉일반화', '정서적 추론')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데(Kernis, 2003; Kernis, Grannemann, & Barclay, 1989), 예를 들어, 중립적이거나 모호한 사건 혹은 타인의 반응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내담자가 해당 사건을 자신의 자존감과 결부시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대안적인 해석을 생각하도록 돕고 감정적 반응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자존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령, 주의 훈련 기술과 마음 챙김과 같은 개입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 흥미, 감정, 사고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옥주희, 김은정, 2015).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자존감 안정성만을 높이는 것이 상담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은 화병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높은 집단에 비해 화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모두 높이는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

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은 서로 다른 발달적 변화를 거치는 변인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하는데, 가령, 몇몇 중단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은 중년기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50세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자존감 안정성은 중년기와 노년기에 걸쳐 감소한다는 점(Orth, Robins, & Widaman, 2012; 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을 감안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구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 참여자의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을 다양화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가령,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차별사건 척도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성차별만 측정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최근 연구자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성차별은 직접적이고 명확하기 보다는 간접적이고 미묘하기 때문에 성차별의 범위를 확장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Nadal, 2009). 후속 연구에서는 성차별의 범위를 확장하여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혹은 '현대적' 성차별(Lewis & Neville, 2015)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자존감의 영향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의 수준, 자존감 안정성 그리고 자존감의 표현 양상과 관련 있는 암묵적 자존감(Falk & Heine, 2014)과 명시적 자존감(Tuijl, de Jong, Sportel, de Hullu, & Nauta, 2014)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차후 성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러한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화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존감의 또 다른 측면인 자존감 안정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자존감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에도 자존감 안정성이 화병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성차별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상담자는 성차별에 노출된 여성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있어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화병증상을 경험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자존감과 더불어 자존감 안정성을 높여 화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추후 화병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화병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존감 수준과 더불어 다른 측면의 자존감(예. 암묵적 자존감, 명시적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25-846.

권정혜, 김종우, 박동건, 이민수, 민성길, 권호인 (2008). 화병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237-252.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2017). 지수로 본 세계 성(性) 평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명수, 조옥귀 (2010).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자기존중감의 안정성과 학교생활적

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0(3), 1413-1425.

김민정, 이기학 (2009). 자존감 불안정성, 자존감 수준, 방어성에 따른 자존감 유형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10(3), 1413-1425.

김민정, 현명호 (2010).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남성 화병 증상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15(1), 19-33.

김보균, 김종우, 지상은, 임재환, 김광호, 황의환 (2000). 화병 인식과 자아존중감 관계에 관한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1(2), 141-148.

김선희, 김은하, 김태훈 (2014). 다문화가정 한국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와 화병: 스트레스 대처양식, 분노 반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0(3), 97-119.

김예은 (2017).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447.

김은하, 김혜림 (2015).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화병간의 관계: 내외통제성을 통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상담학연구, 16(5), 33-47.

김은하, 장윤지 (2015).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을 적용한 화병 사례 연구: 화병, 우울,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469-495.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 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 187-205.
- 김진희, 임성문 (2015). 완벽주의, 신체불만족과 폭식의 관계: 명시적, 암묵적 자존감과 조건부 자기가치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11), 569-605.
- 김혜숙, 장재윤 (2002). 여성 공무원 리더의 효율성, 성 정체성, 삶의 만족도와 조직의 성차별 문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91-208.
- 박 경 (2014). 화병연구의 메타분석과 심리치료. *한국심리치료학회*, 6(2), 23-38.
- 박미향, 김완일 (2014).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475-501.
- 박지현, 탁진국 (2008). 여성종업원의 직장 내 성차별 지각이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2(2), 245-263.
- 손은주, 김성진, 최인철 (2017). 성차별에 대응한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것들.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33-333.
- 신현균, 김희경 (2015). 탈북 청소년의 학업 및 가족문제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11), 337-357.
- 안상수, 김금미 (2010). 성별 관련 조직요인들이 조직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6), 285-309.
- 여성가족부 (2015). 2015 성희롱 실태조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여성가족부 (2017). 2017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원.
- 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한국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8(2), 307-328.
- 옥주희, 김은정 (2015).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5(3), 619-637.
- 우형진 이정기 (2012). 대학생들의 인구통계적 속성, 미디어 이용량, 자존감 수준과 안정성이 인터넷 포르노 몰입 및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6(3), 55-84.
- 유현욱, 홍혜영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77-999.
- 장재원, 신희천 (2011).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635-654.
- 정선태, 홍혜영 (2016). 자기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존감 유형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3(9), 1-25.
- 정현진 (2014). 자존감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우울 및 불안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조민경 (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913-932.
- 한인희 (2015). 직장성차별과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71-271.
- Basford, T. E., Offermann, L. R., & Behrend, T. S. (2014). Do you see what I see? Perceptions of gender microaggressions in the workpla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8(3), 340-349.
- Bentall, R. P., Myin-Germeys, I., Smith, A., Knowles, R., Jones, S. H., Smith, T., & Tai,

- S. J. (2011). Hypomanic personality, stability of self-esteem and response styles to negative mood.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8(5), 397-410.
- Bleidorn, W., Arslan, R. C., Denissen, J. A., Rentfrow, P. J., Gebauer, J. E., & Potter, J. (2016).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A cross-cultural windo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3), 396-410.
- Burke, R. J., Mikkelsen, A. (2005). Gender differences in policing: Signs of progress? *Employee Relations*, 27(4), 425-436.
- Cassidy, C., O'Connor, R., Howe, C. J., & Warden, D. (2004).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ersonal and ethnic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329-339.
- Choi, K-H., Bowleg, L., & Neilands, T. B. (2011). The effects of sexism, psychological distress, and difficult sexual situations on U.S. women's sexual risk behaviors. *AIDS Educational Prevention*, 23(5), 397-411.
- Corning, A. F. (2002). Self-esteem as a moderator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1), 117-126.
- de Man, A. F., & Gutierrez, B. I. B.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with stability of self-esteem as moderator.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4(4), 235-238.
- Dowler, K., & Arai, B. (2008). Stress, gender and policing: The impact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symptoms of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Management*, 10(2), 123-135.
- Falk, C. F., & Heine, S. J. (2014). What is implicit self-esteem, and does it vary across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9(2), 177-198.
- Fischer, A. R., & Holz, K. B.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s of collective and personal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154-164.
- Fischer, A. R., & Holz, K. B. (2010). Testing a model of women's personal sense of justice, control, well-being, and distress in the context of sexist discrimin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3), 297-310.
- Fisher, A. R., & Shaw, C. M. (1999). African Americans' mental health and perceptions of racist discrimination. The moderating effects racial socialization experiences and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95-407.
- Franck, E., & Raedt, R. D. (2007). Self-esteem reconsidered: Unstable self-esteem outperforms level of self-esteem as vulnerability marker for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1531-1541.
- Harrell, S. P. (200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racism-related stress: Implications for the well-being of people of col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Mental Health & Social Justice*, 70(1), 42-57.
- Hayes, A. M., Harris, M. S., (2004). Predictors of self-esteem variabil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3), 369-385.
- Hurst, R. J., & Beesley, D. (2013). Perceived

- sexism, self-silenc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ollege women. *Sex roles*, 68(5-6), 311-320.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 1-37.
- Kernis, M. H., Brown, A. C., & Brody, G. H. (2000). Fragile self-esteem in children and its associations with perceived pattern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 225-252.
- Kernis, M. H., Grannemann, B. D., & Mathis, L. C. (1991).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1), 80-84.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92). Stability of self-esteem: Assessment, correlates, and excuse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60(3), 621-644.
- Kernis, M. H., Paradise, A. W., Whitaker, D. J., Wheatman, S. R., & Goldman, B. N. (2000). Master of one's psychological domain? Not likely if one's self-esteem is unstab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1297-1305.
- Kernis, M. H., Cornell, D. P., Sun, C. R., Berry, A., & Harlow, T.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265-292.
- Kernis, M. H. (2005),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6), 1013-1022.
- Kim, E. H., & Hogge, I. (2013). An Adlerian conceptualization of Korean women with Hwa-byung.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9, 41-54.
- Kim, E. H., Hogge, I., Ji, P., Shim, Y. R., & Lothspeich, C. (2014). Hwa-byung among middle-aged Korean women: Family relationships, gender-role attitudes, and self-esteem.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5(5), 495-511.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A measure of lifetime and recent sexist discrimination in women's liv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439-470.
- Landry, L. J., & Mercurio, A. E. (2009). Discrimination and women's mental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control. *Sex Roles*, 61(3-4), 192-203.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518-530.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1-6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ewis, J. A., & Neville, H. A. (2015).

-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gendered racial microaggressions scale for Black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289-302.
- McLaughlin, K. L. (2017). Sexism Makes Me Sick: An Examination of Potential Mediators in the Link between Sexism and Women's Mental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에서 인출. (10259726).
- Major, B., Kaiser, C. R., O'Brien, L. T., & McCoy, S. K.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s worldview threat or worldview confirmation: Implications for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68-1086.
- Mazzula, S. L., & Nadal, K. L. (2015). Racial microaggressions, whiteness, and feminist therapy. *Women & Therapy*, 38(3-4), 308-326.
- Meyers, D. T. (1997). *Emotion and heterodox moral perception: An essay in moral social psychology*. In D. T. Meyers (Ed.), *Feminists rethink the self* (pp. 197-218). Boulder, CO: Westview Press.
- Min, S. K. (2009). Hwabyung in Korea: Culture and dynamic analysis. *World Cultural Psychiatry Research Review*, 4, 12-21.
- Min, S. K., Suh, S. Y., & Song, K. J. (2009). Symptoms to use for diagnostic criteria of hwa-byung, an anger syndrome. *Psychiatry Investigation*, 6, 7-12.
- Moradi, B., & Hasan, N. T. (2004). Arab American persons' reporte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The mediating roles of personal contro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18-428.
- Myers, E. M., & Zeigler-Hill, V. (2008). No shades of gray. Splitting and self-esteem insta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2), 139-145.
- Nadal, K. L. (2009). Preventing racial, ethnic, gender, sexual minority, disability and religious microaggressions.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positive mental health. *Prevention in Counseling Psychology: Theory, Research, Practice, & Training*, 2, 22-27.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69-582.
- Orth, U., & Robins, R. W. (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 381-387.
- Park, Y. J., Kim, H. S., Kang, H. C., & Kim, J. W. (2001). A survey on hwa-byung in middle-age Korean women.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2, 115-122.
- Park, Y. J., Kim, H. S., Schwartz-Barcott, D., & Kim, J. W. (2002). The conceptual structure of hwa-byung in middle-aged Korean wome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3, 389-397.
- Pascoe, E. A., & Smart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Ro, A., & Choi, K-H. (2010). Effect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reported stress on drug use among racially/ethnically diverse women in Northern California. *Women Health Issues*, 20(3), 211-218.
- Roberts, J. E., & Kassel, J. D. (1997). Labile

- self-esteem,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Prospective data testing a model of vulnerabil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569-589.
- Roberts, J. E., & Monroe, S. M. (1992). Vulnerable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Prospective data testing a model of vulnerabil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569-58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bik, N. J., & Tylka, T. L. (2006). Do feminist identity styles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exist events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1), 77-84.
-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1), 213-240.
- Szymanski, D. M., & Owens, G. P. (2009). Group-level coping as a moderator between heterosexism and sex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sexual minority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2), 197-205.
- Teasdale, J. D. (1988). Cognitive vulnerability to persistent depression. *Cognition and Emotion*, 2, 247-274.
- Thomas, A. J., Witherspoon, K., & Speight, S. L. (2008). Gendered racism, psychological distress, and coping styles of African American women. *Culture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4), 307-314.
- Van Tuijl, L. A., de Jong, P. J., Sportel, B. E., de Hullu, E., & Nauta, M. H. (2014).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and their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in adolescents. *Psychiatry*, 45(1), 113-121.
- Vickery, C. D., Sepehri, A., Evans, C. C., & Jabeen, L. N. (2009). Self-esteem level and stability, admission functional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cute inpatient stroke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54(4), 432-439.
- Waschull, S. B., & Kernis, M. H. (1996). Level and stability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children's intrinsic motivation and reasons for ang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1), 4-13.
- Wei, M., Heppner, P. P., Ku, T-Y., & Liao, K. (2010). Racial discrimination stress, coping,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sian Americans: A moderation analysi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2), 136-150.
- Wei, M., Ku, T-Y., Russell, D. W., & Mallinckrodt, B.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51-462.
- Zeigler-Hill, V., & Myers, E. M. (2012). A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In S. P. McGeown (Ed.), *Psychology of gender differences* (pp. 131-143). Hauppauge, NY: Nova.

1차원고접수 : 2018. 04. 24.

심사통과접수 : 2018. 06. 27.

최종원고접수 : 2018. 06. 29.

The influence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Hwa-byung: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Eunha Kim

Hyeyeong Paik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would be related to Hwa-byung and stability of self-esteem would moderate such a relationship. especially after controlling self-esteem. For this purpose, we administrated online survey in a sample of 240 women.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in stage 1, self-esteem (covariate) was negatively related to Hwa-byung and, in stage 2,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Hwa-byung while stability of self-esteem was negatively related to Hwa-byung. In addition, in stage 3, the interaction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stability of self-esteem was significant, which suggested that stability of self-esteem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Hwa-byung. That is, the grater stability of self-esteem was, the effect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Hwa-byung decreased. Moreover, based on self-esteem and stability of self-esteem, we divided dataset into 4 groups and compared Hwa-byung scores among these groups. Low self-esteem and low stability of self-esteem group reported the highest Hwa-byung scores, followed by low self-esteem and high stability of self-esteem group, high self-esteem and low stability of self-esteem group, and high self-esteem and high stability of self-esteem group. By revealing that stability of self-esteem buffer the negative effect of gender perceived discrimination against Hwa-byung,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both self-esteem and stability of self-esteem.

Key words :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self-esteem, stability of self-esteem, Hwa-byung*